

### 血液透析患者에 있어서 HBV 標識者 및 抗體의 頻度에 關한 研究

서울醫大 內科  
李勳鏞 · 金聖權 · 李正相

만성 혈액투석환자에 있어서 B형간염은 이들이 정상인보다 면역학적으로 억제되어 있어 감염이 있어도 증상의 발현이 심하지 않고, 항체형성이 저하되어 있고 또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센터에서 투석 받는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감염의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투석받는 환자는 HBV에 노출의 빈도가 높은 반면 면역학적으로 억제되어 있어서, 이들에게 HBV 표식자가 얼마만한 빈도로 나타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한편 한국에서는 HBsAg 보유율이 7~9%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을때 투석받는 환자에 있어서의 빈도는 보고자마다 큰 차이가 있다.

연자들은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투석받은 만성 신부전환자 175명 중에서 HBV 표식자 및 이에 대한 항체의 검사가 실시되었던 118명에서 HBV 보유율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투석 전과 투석 중의 HBsAg 보유율은 11.9% (10/84)에서 15.7% (13/83)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고, anti-HBc 보유율은 60% (27/45)에서 80% (44/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투석 전과 투석 중에 HBV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HBsAg은 6% (3/50), anti-HBs는 17.4% (4/23), anti-HBc는 11.8% (2/17)이며,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HBsAg은 8% (4/50), anti-HBs는 17.4% (4/23), anti-HBc는 29.4% (5/17)이었다.

3. 수혈과 HBV 보유율의 관계는 HBsAg 및 anti-HBc 은 유의한 차가 없으나, anti-HBs는 수혈받은 경우는 75.8% (25/33), 수혈받지 않은 경우는 25% (8/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고, 이들은 anti-HBc 양성인 환자이었다.

### 血液透析(HD), 血液濾過透析(HDF) 및 血液濾過(HF) 療法의 比較

漢陽醫大 內科  
朴漢植 · 姜鍾鳴

같은 두患者에 있어서 HD, HDF, 및 HF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비교·관찰하였다.

HD의 치료기간은 72환자·개월로서 cuprophan膜의 coil형 혹은 中空絲型 人工腎을 사용하였고 週 12~15時間 치료하였다. HDF는 17환자·개월 실시하였고 polymethyl metaacrylate의 中空絲型을 사용하였고 血液流量과 透析液流量은 HD 때와 같게 각각 200ml/min 및 500ml/min로 하였으며 限外濾過量은 1回治療당 8~11l, 置換液은 post-filtration法으로 7~9l씩 공급하였다. HF는 9.5환자·개월간 週 10.5~12時間 실시하였고 cellulose triacetate, polyacrylonitril, polysulfon의 中空絲型 혹은 平板型을 사용하고, 置換液은 每治療時마다 18~20l씩 post-filtration法으로 공급하였다.

<비교검토> 치료 중에 일어나는 혈압강하, 구토, 두통, 근육경련 등은 HD≥HDF>HF의 순서였고,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HD>HDF≥HF, 치료전은 blood urea nitrogen 및 creatinine은 HD=HDF<HF의 순서였고, phosphate나 uric acid의 血清値는 有意한 차이가 없었으며 Hb, Hct에도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HD, HDF 및 HF는 治療費, 治療所要時間, 限外濾過量, 治療 중의 血動力의 不安定에 동반되는 症狀發現 등 治療費用에 있어서 一長一短이 있었으나 貧血, 營養狀態 등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 Extracorporeal Ascites Dialysis로 치료한 만성 간질환에 동반한 신부전 1예

서울의대 내과  
이훈택 · 안규리 · 김성권 · 이정삼

심한 복수가 동반된 신부전증을 혈액투석으로 치료